영릉앞의돌다리

조선 왕릉 앞의 돌다리

제1대 태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제27대 순종까지약 500여 년 동안 지속된조선 시대에는수많은왕릉이축조되었다. 특히, 왕릉은풍수조건 중에 일차적으로수구(水口)라고하는것을가장중요시했다.

수구는좌청룡 · 우백호사이의벌어진공간으로 통상 이 공간을 통해서 물이 드나든다. 물이드나드는입구가넓게벌어지지않고 좁아야 묘지를 설치하는 최적지로 본다. 또한, 능앞의금천교는궁궐의금천교를모방하여축조한다리로내금천교와외금천교가있다.

조선시대왕릉은풍수지리설에따라능을보호하는 주산을 뒤에 두고 그 중턱에 봉분이 자리 잡으며, 좌우의 지형이 청룡 · 백호를 이루고, 남쪽으로는 멀리 안산을 바라보는곳에위치하고있다. 왕릉의입구에는홍전문(홍살문)이서있고, 금천교(돌다리)를건너면정자각이있다. 정자각앞동서양쪽에능을관리하는관원들이머무르는수복방과제물을 차리는 수라방이 있고, 다시 동쪽에비석을보호하려고지은비각이서있다. 왕릉의봉분은정자각뒤높은곳에자리잡고있다. 봉분에는 보호석과 석난간이 둘러져있고, 그앞에석상을놓고좌우에망주석을세우고 있다. 돌양 · 돌호랑이는 서로 엇바꾸어 배치하고 밖을 향하여 능을 수호하는형상을 이루고 있다. 석상 앞에는 장명등을세우고, 또 봉분의 동 · 서 · 북 3면에 낮은담을 두르고 있다. 봉분 앞 한층 낮은 곳에문인석1 2쌍, 다시낮은곳에무인석1 2쌍을 세우고 문무인석 뒤에 각각 돌말을 배치하고있다.

건원릉

건원릉(健元陵)은 조선 태조(제1대) 이성계의능이다. 태조는이자춘(추존환조)과의혜황후최씨사이의2남으로탄생하였다. 위화도에서 회군한 후 1392년 7월 16일 개성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듬해 2월에는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1394년 10월 도읍을 한양으로옮겼다. 태조7년(1398년) 8월1차 왕자의 난으로 같은 해 9월 5일 둘째 아들 방과(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되고, 1400년11월 13일방원(태종)이즉위하자 태상왕이 되었다. 태종 8년(1408년) 5월 24일창덕궁에서8남5녀를남기고춘추 74세로승하하여같은해9월이곳에모셔졌다.

효종대왕릉 금천교

효종대왕릉(寧陵)은 효종과 인선왕후를 모신 쌍릉이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소현세자가돌아가자왕세자로책봉되었으며, 1649년에 조선조 제17대 왕으로 즉위하여 1659년에 승하하니 재위 10년에 춘추가 41세였다. 효종은 병자호란 후 소현세자와함께볼모로청나라심양에서8년간 고초를겪었으며, 당시조선왕조가당한굴욕은씻을수없는민족의한이었다.

왕위에 오른 후 효종은 이 수치를 씻고자 청나라 정벌을 계획하여 대내적으로는「대동법」을 실시하고 화폐를 널리 보급하여 나라의 기틀을 다졌으며, 대외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북벌계획을추진하여성채를쌓고 총수병을 양성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이즈음 러시아가시베리아쪽으로남진하자 청나라는 조선에 원병을 청하였다. 이에 왕은 우리 군대의 능력을 시험하고, 청나라의 군사 정세를 탐지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나선정벌 원정군을 보내어 송화강(쑹화강), 흑룡강(헤이룽강)에서러시아군을크게격파하였다. 그러나, 북벌계획을실천에옮기기도 전에갑자기승하하여그뜻을펴지못했다. 영릉은 원래 경기도 양주(지금의 구리시)의 건원릉서쪽에있었는데, 현종14년(1673년)에 여주로 옮겨왔으며, 효종의북벌 웅지를 기리고자1977년능역을보수정화하였다.

홍릉앞의돌다리.

홍릉 석교

홍릉(洪陵)은조선제26대왕고종과왕비 인명성황후의능이다. 고종은철종3년7월 25일,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863년철종이 자손이 없이 승하하자 12세의 어린 나이로 창덕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즉위후처음10년간은흥선대원군이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1873년 흥선대원군이물러나고고종이직접나라를 다스렸으나정치적실권은명성황후의친인척인 민씨 일족이 장악하였다. 1897년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연호를 광무라 하여 자주독립국가로서의면목을세계에알리고자하였다. 고종이재위하던44년간은외세의침입이 잇따랐던 격동기였다. 고종은 이를 막아내려고노력하였으나결국성공하지못하고, 1919년1월 21일 67세로 덕수궁 함녕전에서돌아가셨다.

명성황후는여성부원군민치록의딸로16세인고종3년(1866년)에 왕비가 되었고, 고종 11년에 왕자인순종을낳았다. 고종의 친정 이후 황후와 친인척인 민씨 일족이 실권을 장악하였으나 정치 활동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임오군란(1882년) 때에는 충주로 피신하여겨우목숨을건진일도있었다. 명성황후는임오군란이후청나라와 러시아의 세력을끌어들여정치적기반을다지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외교정책은일본을자극하였고, 결국 일본 공사가 보낸 자객에게 1895년 10월8일경복궁건청궁에서살해되었다(을미사변). 광무원년(1897년)에명성황후로추존되었으며 1919년고종이돌아가시자

목릉앞의돌다리.

처음안장하였던청량리홍릉에서지금의장소인남양주시금곡동으로이장되었다.

목릉 금천교

목릉(穆陵)은조선제14대선조와원비의인왕후 박씨 및 계비 인목왕후 김씨의 능이다. 선조는 제11대 중종의 아들인덕흥군초의셋째아들로명종의뒤를이어 1567년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후 41년간재위하는동안에이황, 이이등많은인재를 등용하여 성리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을 당하여의주로피난하는등어려움을겪기도 하였다. 선조는1608년 57세로 경운궁(지금의덕수궁)에서돌아가셨다.

의인왕후는반성부원군박응순의딸로선조2년에왕비가되었으나자손이없이선조 33년 46세로 경운궁에서 돌아가셨다. 인목왕후는 연흥부원군 김제남의 딸로 선조 35년에왕비가되었다.

그러나, 광해군이왕위에 오른 후 아들인 영창대군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왕비의 지위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불행을 겪기도 하였다. 그 후 인조반정으로 대비로 복위되었고 인조 10년에 인경궁 흥명전에서 49세로 돌아가셨다. CJ

손광섭
광진건설회장 · 청주건설박물관장